

## 구병모 소설의 재난 의식과 에코페미니즘의 상상력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2011)과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2015)을 대상으로

정연희\*

### 1. 서론

구병모의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2011)과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2015)은<sup>1)</sup> 전체적으로 보아 재난소설로 읽힌다. 재난 같은 일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자연 재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들 소설 세계의 삶은 그야말로 재난과도 같다. 편재하는 재난의 한편에는 체계적인 인간의 폭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자연의 폭력이 있다. 이 양자는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따져 묻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히려 두 영역은 서로 전회하며 서로를 증폭시킨다. 오랜 가뭄으로 사회 내부의 폭력과 긴장이 팽팽해지는 「파르마코스」, 산성비가 도시 전체를 부식시키는 「식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떼가 인간의 살점을 뜯어먹는 「조장기」, 성적 행위를 하면 몸 속 곤충기체가 몸을 뚫고 나

---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1) 구병모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개정판, 민음사, 2021)과 두 번째 단편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문학과지성사, 2015)을 텍스트로 한다.

오는 「곤충도감」, 온 도시가 정글처럼 덩굴손으로 덮이고 마는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은 생명 파괴의 폭력을 자연재난으로 표현하는 소설의 예라 할 수 있다. 구병모 소설의 재난은 사회경제시스템과 생명과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생긴 생태 위기로 간주할 만하다.

구병모 소설이 자연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그 방식에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기입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 타자와 비인간 타자의 쌍둥이 차별에 연결되어 있는 본질을 캐묻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 소설의 자연이 능동적인 주체로 해석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자본주의의 기획 아래 자연이 타자로 자리매김되고 자원으로 전유되는 수동적인 대상인 것과 다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자연은 일부 생태문학에서 처럼 정신을 정화하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성소로<sup>2)</sup> 정체되지 않는다. 성소 자연을 곁에 놓고 보면 구병모 소설의 자연이 지닌 독특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의 자연은 공동체의 배제주의와 차별주의를 경고하고 공감의 소통관계를<sup>3)</sup> 요청하는 활성화된 자연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기법의 측면에서 말하면 구병모 소설은 경험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에서부터 비현실적인 환상에 이르기까지<sup>4)</sup>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환상 장치는 경험 현실을 판타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생태적 위기를 부각하는 공포의 발견술로 여겨진다.<sup>5)</sup> 앞서 언급한 「식우」나 「덩굴손

---

2) 이들 생태문학은 기술자본주의를 반성하고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을 '저밖에 있는 하나의 타자'로 설정한다. 그레첸 레글러, 「에코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175쪽.

3) 안아름의 「현대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 연구」(『문학과환경』16/4, 2017, 209-214쪽)는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에서 '에코-자아'와 '접촉'의 생태윤리를 읽었다.

4) 황광수, 「일상적 무감각과 치사량의 독성」(『고의는 아니지만』 해설), 277쪽.

5) 정연희, 「구병모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와 돌봄의 윤리」, 『돈암어문학』40, 2021, 71-76쪽.

증후군의 내력」은 물론이고, 비유가 사라진 황량한 폐허 도시의 이야기(「마치…… 같은 이야기」)나 ‘재봉틀 여인’에게 부탁해 감정을 봉인한 남성의 사물화 설정(「재봉틀 여인」)이 그렇거니와 살 가치가 있/없는 생명의 경계 짓기(「곤충도감」, 「파르마코스」)는 기괴한 공포로 생태윤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두 소설집은 서열주의와 배제주의가 일으키는 생명 파괴를 강도 높게 소환하고 위계 이론의 ‘경계 조건’을 넘어서고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사적 시도라고 간주할 만하다. 구병모 소설의 이런 경향은 남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적 편향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과 자연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자연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는 에코페미니스트 윤리와<sup>6)</sup> 부합하는 면이 있다. 특히 이들 소설에서 강력하게 대화를 요청하는 환상적 은유 형상도 에코페미니스트 미학 차원에서 살필 수 있는 사안이다. 여성과 자연을 능동적인 주체로 내세우고 이를 코요테<sup>7)</sup>로 이미지화한 에코페미니즘의 비유를 떠올리면 구병모 소설의 은유 형상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코요테는 “재치 있는 작인으로서 세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시각화를 촉진”<sup>8)</sup>하는 형상인 것인데, 에코페미니스트는 이런 시각적 은유 장치를 사용하여 악의 없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본고는 구병모의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과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에 나타나는 재난의식과 자연의 재현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재난의 근저에는 적대적인 사회의 차별구조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6) Karen J. Warren and Jim Cheney, “Ecological Feminism and Ecosystem Ecology”, *Hypatia* vol.6, no.1, 1991, p.180.

7) 코요테는 지배담론으로는 일관되게 담아낼 수 없는 코요테의 상호모순적이고 다면적인 성격과 창조 능력, 능동적 자연의 상징으로 에코페미니스트의 관심을 이끌었다. 해러웨이는 남성중심적 담론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이론을 ‘재구성된 코요테 담론’으로 제시한다. 코요테 담론에 대해서는 신두호의 「‘코요테 담론’-생태여성주의 문학의 자연/여성 주체화하기」, 『현대영어영문학』, 53권 3호, 2009, 73-86쪽 참조.

8)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s”,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p.593.

째는 기괴한 환상으로 자연을 실체화하는 알레고리이고, 둘째는 여성의 신체가 ‘대상과 자원’이 아니라 ‘작인’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상상력이며, 셋째는 경계를 넘어서 무고한 대화를 시도하려는 영적 교감이다. 구병모 소설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지배와 폭력에 깔려 있는 이분법적 배제주의를 식별하는 질문을 포함한다는 사실, 그런 문학적 질문이 에코페미니즘의 상상력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구병모 소설의 중요한 국면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서사 윤리와 에코페미니스트 윤리가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인간과 자연의 신체교환과 ‘타자 다시 쓰기’

「조장기」는 살아 있는 사람의 살점을 뜯어 먹는 새 떼 이야기이다. 전국에서 일곱 건이 발생했지만 원인은 불명이고 설득력 없는 추측이 난무할 뿐이다. 살점을 뜯는 새의 종류는 그때마다 달랐고 발생지역이나 피해자도 다양했다. 당하는 사람의 직업군도 일관성을 찾을 수 없고 생활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뚜렷한 재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줄줄이 내놓는 대책이라고 해봐야 효과 없기는 매 한 가지이다. 새의 공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격이 줄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에 빠르게 번지는 공포와 불안은 “다혈질의 일반인들이 거의 화풀이나 재미로 그것(인용자:새)들을 밟아 죽이거나 차로 밀어버”리는 살풍경을 빚기도 한다.

새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절망의 냄새를 맡고 몰려온다는 거였다. 절망으로 대표되긴 했는데 그것은 삶에서 산출된 총체적인 오류와 실패와 무기력, 독성, 장애, 회한, 허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조장기』, 『고의는 아니지만』, 221쪽)<sup>9)</sup>

---

9) 앞으로 본문을 인용할 때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니 신화적 믿음이나 자연의 응징으로 새들의 공격을 풀이하는 서사가 도시에 유행한다. 특히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죽음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도시 전체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절망의 냄새를 맡아본 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풍기는 절망의 맛과 냄새에 반응하여 덤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만성화된 빈곤과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며 “어느 경우 할 것 없이, 있을 수 있는 불행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은 아닌, 낮에 썰린 풀 같은 삶”들이었는데, 새들은 이들과 “시체”사이에서 변별점을 찾지 못하고 공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제목 ‘鳥葬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독특함은 재난으로 인식되는 새들의 ‘공격’을 절망에 빠진 죽은 삶들의 장사이면서 차라리 살점/절망들의 ‘승천’이길 바란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장기」의 서사를 이끄는 시선이 절망에 빠진 주인공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주인공이 카메라의 눈이 되어 보여주는 도시의 풍경은, 사회와 윤리가 ‘시장’에 복종하는 신자유주의식 능력주의의 세상이다. 주인공이 사는 현실은 “생활비를 위해서든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든 예스, 예스라고 바보같이 대답하다가 희망을 강요받고 점점 거기 중독되어 희망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어떤 지구의 천재지변도 이겨나갈 것이라고 부추기는 긍정의 힘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고, “위로와 공감, 소통”은 신속하게 소비되는 문화상품이 될 뿐이다. 모든 절망과 죽음은 개인 탓이자 개인 문제가 되어 버리고 세상의 혼계와 비난은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무지와 무관심으로 가득한 잉여이며 쓰레기”인지를 자각하게 한다.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된 주인공의 처지는 그의 절망이 회복 불가능한 절망과 불안으로 가중되는 현실을 대변해준다. 주인공을 포함한 “낮에 썰린 풀 같은 삶”들은 이 도시의 예외로 밀려난 주변부 타자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가 유지되는 기반이자 구성 조건이 되고 있는 것

이다.<sup>10)</sup> 그들은 아감벤이 재해석한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아무 것도 아닌 자’, 혹은 ‘인간 쓰레기’, 혹은 ‘견뎌야 하는 자’가 되어가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냥 유목민족의 믿음처럼, 뜯어 먹인 영혼들이 하늘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정도지요 뭐. 그 애의 대답은 피안에 닿아 있는 듯한 목소리로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새들의 배 속에 점점이 분해가 되어 담겨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 자유라고 간주할 만큼 이 아이는 바닥에 들어붙어 있다는 뜻임을 알아차리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238쪽)

그때 계절을 떼고서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살점을 입에 문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냈는데, 나는 조금 전까지는 형태를 지닌 누군가였을 그 살점이 승천하는 걸 바라보며 부럽다, 부럽다고 중얼거렸다.(242쪽)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주인공은 자신의 절망을 타인의 것과 가까스로 분별해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결국 벌거벗은 생명의 바다에 놓인 자신의 처지가 하반신 마비인 열일곱 살 소년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하릴 없이 인정하게 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주인공은 “조금 전까지는 형태를 지닌 누군가였을 그 살점이 승천하는 걸 바라보며…부럽다고 중얼”거리고 있다. 주인공의 시선이 새들의 공격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세상의 재난이 ‘아무 것도 아닌 자’의 ‘승천’으로 전의되는, 이른바 ‘조장기’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새는 ‘아무 것도 아닌 자’의 절망과 불안(‘살점’)을 흡수(소화)하여 하늘로 승천한다(날아오른다). 새의 공격은 삶의 절망과 ‘등가의 재난’<sup>11)</sup>이 된다.

여기에 이르면 새의 형상이 지닌 독특함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로 갈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새가 절망을 육화한 주체로 재신화(‘유목민족의 믿음’)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새의 “불길한 울음소리”라는 암호의 의미이다.

---

10)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33-52쪽 참조.

11) 고영진,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 『한국문학이론과비평』75, 2017, 158쪽.

불길한 암호는 타자화를 존립 기반으로 삼고 타자화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적대적인 사회체제를 향한 항의로 이해되는 것이다. 인간 타자와 자연 타자는 이렇게 신체를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절망을 침묵으로 견뎌내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행위자이자 작인으로 재의미화되고 있다.

구병모 소설의 신체교환과 ‘타자 다시 쓰기’는 「덩굴손증후군의 내력」<sup>12)</sup>에서 보다 전면적이고 막강한 작인의 설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소설은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각 경제에 편입된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다가 덩굴손으로 변하여 도시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서사 기동으로 되어 있다. 도시 사람들은 덩굴손의 번식에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덩굴손 베어내기를 귀찮은 노동쯤으로 넘겨버린다. 배제된 약자의 원한과 호소의 육화로 설정된 덩굴손-인면수는 “절규”와 “외침”으로 자기 존재를 알린다. 예외자-자연이라는 쌍둥이 타자는 대화라는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절규와 비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과 지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 과학 지식의 구성에서 덩굴손-인면수는 유효한 작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동적이고 불활성인 것으로 간주된다. 오히려 도시를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인면수는 베어버려야 할 ‘인간/쓰레기’로 은유된다. 소설의 관점으로 말하면 인면수의 증식은 “이 도시에 그리 변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이고 도시가 “자본의 흐름을 훨씬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삶의 근간으로 받아들이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가 “실상은 자신의 피부를 타고 몸속까지 전해져 뼈를 울리는 진동과 뒤섞인 마음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않는 한 도시의 공포는 계속될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말하면 소설은 타자들을 ‘대화’의 권력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재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핵심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구병모 소설에는 적대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정치적 존재의 옷이 벗겨지고 아

---

12) 구병모,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문학과지성사, 2015.

무 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생명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과 동일한 타자화의 구조에 놓여 있는 자연과 신체를 바꾼다. 그럼으로써 자연은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로 자신을 드러낸다. 구병모 소설은 이렇게 자연을 능동적인 주체로 그려 놓고 있다. 구병모 소설에서 자연은 우리를 둘러싼(enviro-)<sup>13)</sup> 환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느끼고 말하고 살아 있는 주체로서 은유적 지위를 가진다. 이들 소설은 인간 타자와 자연 타자를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로 다시 쓰고 있다. 에코페미니스트 윤리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살점/절망을 뜯어 먹는 새와 온 도시를 마비시키는 덩굴손-인면수가 도덕적 작인이 되는 것인데, 도시는 이들 행위/자를 처리해야할 재난으로만 여긴다. 이들이 요청하는 대화는 전통적인 분석 이론이나 기술 과학 이론으로 해명되지 않는 요령부득의 재난이 될 뿐이다. 세계는 마스터 디코더를 위해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알아서 없어지지도 않는다. 세상의 코드는 아직 읽히지 않고 있다. 읽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sup>14)</sup> 해러웨이의 말을 따르면 그 의미가 읽힐 때까지 재난은 가중되고 가속될 것이다. 이것이 구병모 소설의 환상적 알레고리가 담고 있는 재난의식이자 공포의 발견술이 함축하는 전언이라고 할 만하다.

### 3. 죽은 은유 사회와 생명을 묻는 디바이

구병모의 공포 발견술이 환상적인 알레고리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다면 그

---

13) enviro-는 그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이원적이며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으며 우리가 아닌 모든 것, 즉 환경에 둘러싸여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eco-는 상호 의존적인 커뮤니티, 통합된 시스템 및 구성 요소 간의 강력한 연결을 의미한다. Cheryll Glotfelty, "Introduction:Literary Studies in an Age of environmental Crisis", Ed.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The Ecocriticism Reader*,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XX.

14) Donna Haraway, *Ibid.*, p.593.

것은 어떤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겠다. 가령 우리는 문학 언어를 무슨 특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잠재된 복합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포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문학 언어의 중요한 수사법은 비유이고 그 중은 유일 것이다. 「마치…… 같은 이야기」(이하 「마치」)는 이런 ‘비유’ 자체가 핵심 내용이 되는 작품이다. 소설의 세계는 비유가 금지된 도시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의 질문으로 넘어가 그 의미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시작은 직유법부터였습니다. 방송 뉴스부터 크고 작은 광고에 이르기까지, 가깝고 사소하게는 전단지나 공문 한 장에 이르기까지, 「마치」나 ‘같이’, ‘듯하다’가 들어가는 단순 직유법을 통제했으며, 그 정책이 웬만큼 자리를 잡자 다음으로 좀 더 차원이 높거나 상징을 내포하여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이상의 개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은유법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고의는 아니지만』, 18쪽)

전후 도시의 재건을 위해 시장이 펼친 언어규제정책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시장은 직유법부터 시작하여 좀 더 차원이 높거나 상징을 내포하는 은유의 사용을 금지한다. 필사적으로 비유를 금지함으로써 도시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인 명령과 급속한 경제회복이다. 반면에 잃는 것은 미묘하고 복잡한 기미와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는 여유와 관심이다. 도시가 금지하는, 즉 “두 가지 이상의 개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은유법”의 금지는 결과적으로 교섭이나 대화보다는 힘 있는 자들의 진압을 전횡하게 했고 “증오와 오해와 폭력의 도구”의 말만 남겼다. 말이 관계 짓기의 방법이라면, 비유의 실종은 관계 짓기의 소멸이다. 관계가 상실된 곳에는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사건이 없는 곳은 ‘마치’ 죽은 사회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작가는 이처럼 은유가 죽은 도시를 관계가 사라진 생명

력 없는 폐허로 그려놓았다.

시청이라고 하면 그 앞에 하루치의 삶을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북적거릴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마에 땀한 생활의 땀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오가는 바쁜 발걸음 정도는 있을 줄로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은 인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문 앞을 지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 그런 일상의 업무가 정지된 듯이, 아니 어쩌면 일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은 이름만 시청일 뿐 거대한 폐가처럼 보였어요.(37쪽)

위의 인용문에서 시청은 공동체의 광장이자 삶의 중심으로 제유된다. 그런데 시청은 “활발한 움직임”이 정지해 있거나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죽음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도시 전체가 일상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폐가”처럼 보인다. 이렇게 작가는 은유 실종의 사회를 “어떤 다양하고 유용한 의미도 산출”되지 않는 전체화의 세계로 그려놓았다. 소설에 드러나는 상징적인 전체화 세계는 다양한 목소리가 흐르지 않는 반생태적 사회로 이해된다.

그렇게 보자면 이쯤에서 은유와 반생명은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은유가 사라진 사회의 알레고리는 로만 야콥슨의 은유 정의에서 먼저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은유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구조 중 하나로서 유사성에 따라 연결되는 것<sup>15)</sup>, 그러니까 유사성으로 하나의 영역을 그와 다른 영역으로 연결 짓고 그림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언어작용으로 이해된다. 은유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봄으로써 깨달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존하는 기본적인 은유 구도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유방식을 조직한다.<sup>16)</sup> 에코페미니스트는 이런 은유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여 왔다.

---

15) 로만 야콥슨, 신문수 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2, 94-98쪽.

16) 조너선 컬러, 조규형 역,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129쪽.

에코페미니스트의 맥락에서 은유를 다시 이해하면 유사성 아래 사유된 은유는 동일성의 전제 아래 대상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믿음 아래에서 다른 삶과 다른 영역을 합법화하고 연결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sup>17)</sup> 어떤 한 영역이 다른 한 영역에 합일되거나 더 큰 전체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경계를 넘어 연결을 전제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은유 그 자체가 다의성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언어작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관찰과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는 인식은 비유로 가능해진다. 은유로 타인의 삶을 조명한다면 은유적 순열과 패턴의 연관성을 통해 경험을 재/맥락지음으로써 다양성이 생성되는 것이다. 은유가 살아 있는 사회는 다양한 관계를 맺는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익숙한 대화구조 대신에 새로운 의미의 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치」의 소설세계는 이러한 은유 논리에 기대어 구현되고 있다. 소설은 은유가 실종된 적대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무질서를 조장하고 혼돈을 만드는 무법자의 감정으로 간주되는 불모의 공포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마치」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화자의 추론이다. “‘저 미무르 같은’, 내지는 ‘미무르만도 못한’”이라는 비유가 어찌면 시장이 비유를 금지하는 발단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비유가 시나브로 시장을 진짜 ‘미무르’로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화자의 생각과 짐작에서 「마치」가 생각하는 비유의 효과들이 드러난다. 요컨대 언어가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생각에 이름을 부여할 뿐이라는 견해가 부정되는 것이다. 그보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짐작, 그래서 다른 파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

---

17) 행위자는 다양하고 멋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차이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자연 자체를 ‘대화’의 힘으로 충전된 사회적 관계에 포함하는 해러웨이(Ibid., p. 593)의 논의가 대표적이며, 짐 체니는 관련 논의를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Jim Cheney, “Nature/Theory/Difference”, Ed. Karen Warren,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pp.169-70.

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파퓰에 담긴 개인의 미묘한 감정이나 순전한 개인성이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억압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위협과 반생태적 기이함을 과격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반생태성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소설이 「곤충도감」이다. 다음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첫 장면이다.

남자의 몸속에서 이가 맞지 않는 루빅큐브를 억지로 힘주어 돌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여섯 가지 색깔이 뒤엉켰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스물여섯 개 주사위의 움직임과 같은 동작으로, 남자는 자기 목뒤로 팔을 뻗으며 절규한다. 몸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소리를 따라 남자의 몸이 기이한 각도로 뒤틀린다. 곧 관절이 망가지고 실이 뒤엉킨 마리오네트 모양이 된다.

몸속에서 뼈를 부수고 근육을 찢던 소리가 마침내 남자의 견갑골 부위를 뚫고 나온다.

두 쌍의 투명하고 거대한 날개, 바람을 가르며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은 소리를 내며 허공에 펼쳐진 채 떨고 있다. …… 알맹이를 꺼낸 포도 껍질처럼 남자의 몸은 그 자리에 구겨져 내리고, 한 마리 곤충이 여섯 개의 다리를 세우며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고의는 아니지만』, 171-172쪽)

인용문은 성범죄 전과자의 몸속에 주입한 곤충이 남자의 몸을 찢고 나오는 장면이다. 그 곤충(뱀)은 비공식 연구소가 개발하고 국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과자의 몸속에 주입해 놓은 반생물이자 반기계이다. 곤충은 숙주인 남자가 성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을 먹고 급속도로 커지면서 남자 몸을 찢고 나온다. 재범예방이 명분이기는 하나 곤충장치의 요점은 국가 권력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감시와 처벌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소설 세계의 한 편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징벌 폭력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형편이 소설의 핵심국면으로 놓여 있다. 정상적인 성관계나 일상적인 흥분까지는 물론이고 “죄질과 큰 관계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징벌하는 것에 인권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

「곤충도감」의 이런 세계를 포착하는 것은 열여덟 살인 ‘나’의 시선이다. ‘나’는 열네 살에 ‘그’(이복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sup>18)</sup> ‘그’는 4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가 사는 건물에 세 들어 와있다. ‘그’도 몸속에 ‘놈’을 심고 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와의 공거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놈’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놈은 안전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 있더라도 삶의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목숨만 붙여 놓”은 ‘한갓 삶’이 되게 하는 생명 말살장치이다. ‘나’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나 방법을 찾느라 부심한다. 그것은 다만 죽은 듯이 살아야 살 수 있다는 ‘말 그대로의 생명’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다시 질문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의 미소 띤 얼굴은 이미 그대로 굳은 채, 몸속에서 토해지는 소리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자세는 흐트러져 간다. 그리고 내 몸에 그의 무게가 온전하게 실린다. 흐려지다 마침내 출렁거리는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은, 손 내밀어 닿기만 해도 가루가 떨어져 내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은 놈의 날개가 아니라, 눈부시게 흰 천사의 날개다.(210-211쪽)

‘나’는 ‘그’와 ‘필멸’을 불러올 성행위를 감행한다. 현실적으로 성행위는 ‘그’의 육체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자 자연생명을 절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살리고 싶다는 ‘나’의 욕망이 ‘그’의 필멸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죽음으로써 산다는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까닭이다. 그것은 일단 ‘죽어 있는 삶’의 해체이며 ‘그저 사는 삶’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간주할 만하다. 마지막 순간 ‘나’의 시선에 “눈부시게 흰 천사의 날개”가 현현하는 까닭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8) 성폭행은 세상의 시선이다. 그가 세상의 처벌을 받는 내내 ‘나’는 성폭행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나’와 그의 금지된 사랑이 미약하게 암시되어 있는데, ‘나’의 태도는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점은 이 장면이 간직하고 있는 기묘함이다. 이는 영성의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가하면, 성스러움이 되기도 하고 불순한 죄라는 현상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있다. 성스러움과 불순함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영성은 자연과 문화 사이, 동물과 언어적 존재 사이, 감각되는 것과 명명된 것 사이의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성 혹은 성스러움이 보호와 전능에 대한 욕구나 제도를 통해 재충전되는 종교적 '욕구'가 아니라 힘과 무능력 사이의 균열에서 오는 것이라면,<sup>19)</sup> '나'의 이 행위는 영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 선과 악, 순수와 불순, 허락과 금기,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사이의 균열을 건너뛰어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전기누전 같은 지경에서 환영으로 비친 "천사의 날개"는 전적으로 '나'의 시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차원의 성스러움을 말할 수 있겠다. 이성적 고려에 얽매이지 않은 채 '나'가 지금 이 순간 생명에 느끼는 자기 확신이다.<sup>20)</sup> "이미 그의 어제와 오늘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없을 내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평온한 태도에 생명의 자기 확신이 깃들어 있다. 동요되지 않으며 관능적이기까지 한 '나'의 태도는 어떤 올곧은 확신을 느끼게 해준다. 「공존도감」의 세계는 국가 권력의 반생명적 폭력성뿐만 아니라 별 뜻 없이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기술진보의 야망을 담고 있다. 그런 탓에 생명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은 설 자리를 잃고 생명에 대한 징벌적 폭력이 난무한다. 이때 여성의 신체는 단지 생명을 생산하는 동물학적 자원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가 출현하는 장소로 재검토된다. 이는 '생명을 주는 여자'와 '의미를 주는 남자'라는 오랜 역할 분배가 사라지는<sup>21)</sup> 순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신체는 의미와 강력한 유대 관계

19) 카트린 클레망·줄리아 크리스테바, 임미경 역,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52쪽.

20) 카트린 클레망·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24-25쪽.

21) 카트린 클레망·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28쪽.

가 있다는 알레고리로 읽히는 것이다. '나'의 몸은 조에(생물학적 생명)와 비오스(의미가 부여된 생명)의 기이한 교차로가 된다. 신체는 생명에 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가의 전략적 장치가 되고 있다.

#### 4. 복수 원환(圓環) 사회와 영적 교감의 상상력

푸코는 권력의 문제로 생물학적인 생명이 중요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런 그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승리는 일련의 정교한 정치 기술을 통해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해낸 새로운 생명 권력의 규율 통제로 가능했을 것이다.<sup>22)</sup>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살피는 임무를 떠맡고, 개인을 국가 안으로 통합시키는 수단이 공고해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체들은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명이 된다. 아감벤의 통찰에 의거하면 생물학적인 생명과 생명의 욕구가 정치적인 사실로 변했다는 점은 생명정치가 죽음정치로 전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23)</sup> 「곤충도감」이 생명정치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제거라는 죽음정치로 전도되는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면, 「파르마코스」는 희생양이 될 수는 없지만 '살해 가능한 생명'으로 타자가 되는 형편을 포착하고 있다.

「파르마코스」의 마을은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황폐해졌다. 가랑비로 약간의 물을 겨우 확보하자 마을은 강력한 규제와 극한의 통제로 “딱 죽지 않을 양의 물”을 배급한다. 이 소설이 차용하는 옛 이야기의 형식이 늘 그렇듯이, 마을 우물로 지친 여행자가 찾아와 물을 청한다. 수는 자비를 베풀어 가족의 몫인 물을 여행자에게 양보한다. 다음 번 물 당번인 루는 또 물을 달라는 여행자의 청을 거절한다. 여행자는 수에게 꽃과 보물을 토해내게 하고, 루에게는 지렁이와 개구리와 온갖 벌레를 토해내게 한다. 익숙한 옛 이야기의 패턴에 의지하면 여행자

---

22)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37쪽.

23)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40쪽.

로 가장한 마법사가 수에게 선물을 선사하고 루에게 벌을 내린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상인지 벌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는 탐욕의 대상이 되어 계속 꽃과 보석을 토해내다가 산 채로 배가 갈려 죽음에 이른다. 루는 자신이 뱉어낸 미물들이 물길을 열지만 미물이라서 저주받는 혐오 대상이 되고 “신전을 가장한 감옥”에 유폐된다.

소설의 전개가 이쯤에 이르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목 ‘파르마코스’가 암시하듯이 루는 공동체 전체를 “고통과 혼란에 빠트리고 아우성을 쥐어짜냈던 갈증”을 해결한 ‘파르마코스’<sup>24)</sup>인가. 지친 여행객은 희생양의 표지를 달아주는 신탁자인가. 얼핏 보면 루를 향한 공동체 폭력은 합법적 폭력의 초월성으로 나쁜 폭력인 재난을 이겨내고 그로써 한 사회가 유지되는 고대의 폭력 구조와 닮아 있다.

그들은 나를 무릎 꿇리고 구두코로 내 턱을 받쳐 올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사기를 치는 계집은 마녀재판에 부쳐서 산 채로 태워버려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는 만큼 특별 취급으로 놔두는 거라면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로 물 자체였는지, 물 너머로 비치는 미워할 만한 누군가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더 지나서는 이년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비가 오는 날이라도 생기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우연의 일치로 간주하고 그때 목을 매달든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곧 살아남은 이유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67-68쪽)

가령 고대인들이 파르마코스를 곳곳에 끌고 다니면서 모든 불순한 것을 그에게 덮어씌워서 그를 죽이거나 추방하였다면, 「파르마코스」의 마을 사람들은 ‘루’에게 혐오의 이미지를 들씌우고 추방하여 감금한다. 이 둘의 경우에서 공동

---

24)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전염병이나 기근, 외세 침입이나 내부 불안 등의 어떤 재해가 도시를 덮치거나 덮치려고 할 때 언제나 집단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파르마코스가 있었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 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144쪽). ‘파르마코스’는 준비된 희생양이었다.

체 내부의 폭력과 불안, 즉 공동체 안의 상호 공격 의사가 희생물로 집중되는 ‘집단 전이’<sup>25)</sup>를 볼 수 있다. 이들이 다른 것은 고대의 파르마코스는 불순함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제의를 통해 신성의 이미지를 쓴다는 점이고, 소설의 파르마코스는 제의와 정화의 상징 의미는 제거되고 물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전략한다는 점이다. 이 소설의 파르마코스는 성스러운 희생물이 되지는 못하고 살해는 가능한, 저주 받은 생명체로 재현되고 있다.

루를 향한 만장일치의 폭력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것이다. 루는 그녀가 토해내는 미물들과 동일시된다. 지렁이나 개구리, 혹은 파리나 모기 같은 날벌레 등속은 폭력 대상이 될 만한 혐오스러운 것(“마을 사람들은 내가 물고 온 물을 취하고 토해낸 미물들을 부지런히 밟아 죽였습니다”)으로 간주되고, 그것들을 뱉어내는 루 역시 참아내야 하는 더러운 것(“이년아 우린들 좋아서 그 꼴을 보고 싶은 줄 알아, 네년이 그 짓을 해야 비가 오니까 그렇지!”)으로 여겨진다. 말 그대로 루-‘미물(微物)’에 폭력을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타자성이 주어진다. 루-미물은 어떤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을 투사하여 사물화한 것이다.

탈신화화와 탈신성화로 생명의 의미가 탈각된 루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유”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는다. 그리고 그동안 “감당해온 배신과 모멸”로 인해 축적된 분노가 폭발하여 저주와 복수를 감행한다. 루는 3박 4일간 벌레들을 토해내어 온 마을을 물에 잠기게 했으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파르마코스」는 오랜 가뭄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버린 마을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폭력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수의 구조이다. 말하자면 루의 복수는 자신에 가한 폭력을 벌한 것이고, 루가 벌한 폭력의 죄악은 자신을 첫 번째 죄악으로 여기지 않다는 점이다. 복수의 성격은 자신의 폭력을 선행하는 폭력(가뭄, 사회의 불안과 숨겨진 원한들)에 대한 대응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복수는 스스로 새로운 복수

---

25) 르네 지라르, 앞의 책, 19쪽.

를 칭하고 그림으로써 끝나지 않는 폭력의 연속과정에 놓인다. 이 소설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복수의 고유구조 안에서 재난과 폭력 사이의 분명한 차이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자연에서 시작되는 재난과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재난이 식별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른다는 점이다.

소설 제목 ‘파르마코스’가 이끌듯이 고대의 제의적 희생물과 비교하면 현대의 ‘파르마코스’가 지닌 생태적 문제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제의적 희생물은 해로운 폭력을 이로운 폭력으로 바꾸고 평화와 풍요로 변형시키기 위해 모든 해로운 폭력을 자신의 죽음으로 끌어 모은다.<sup>26)</sup> 반면에 소설의 희생물은 탈마법화 과정에서 정화의 기능은 사라지고 더 크고 더 잔인한 폭력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괴와 죽음의 경로를 밟는 이 과잉 폭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파르마코스」는 인간 간에, 혹은 인간과 자연 간에 일어나는 상호 폭력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다. 상호 폭력이 멈추지 않는 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원한의 고리에 갇히게 되고 절멸의 끝에서야 종결된다는 것이다. 「파르마코스」의 결말에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읽는다면, 그것은 ‘지금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파멸이 온다는 경고’라고 할 만하다.

폭력이 가진 종말의 방향을 어떻게 틀 수 있는가. 다른 세 소설 「이물」, 「덩굴손증후군의 내력」, 「어디까지를 묻다」에서 질문의 답을 구해볼 수 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개인의 능력 탓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주인공(「어디까지를 묻다」)은 “자신의 심연에서 가장 단순하며 온전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되돌아올 여지를 찾”기 위해 삶의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진다. 그의 물음이 직진 일변도의 숨 가쁜 현실에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되돌아보는 숨통 같은 성찰의 시간을 상징한다면, 다음에 살펴볼 「이물」과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은 그렇게 마련된 마음의 여백에서 가능할 수 있는 확장된 대화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구병모 소설의 세계에는 일상의 폭력이 뿌리내리고 있고 폭력의 내면에는 방

---

26) 르네 지라르, 앞의 책, 145쪽.

어적 이기심과 냉혹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sup>27)</sup> 가령 「이물異物」의 양선은 사회 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속물적 직업윤리의 편에서 보면 그의 동정심은 돌봄 ‘노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돌봄 ‘직업’의 확대재생산을 막는 쓸모없는 감정이 된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양선은 선후배와 동료들의 핀잔을 들어왔는데, 이 동정심은 생태적 감정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동정심의 생태적 성격은 ‘이물’ (“바위섬 모양으로 버틴 거대한 털 뭉치”)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목전에 구체화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뿐 내 밖에 있는 나 아닌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침입자이기 때문이며 그것의 내면에 무엇이 들었거나 말았거나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는 물론 어떤 경로를 통해 여기 도달했는지도 관심 가질 까닭은 없었고, 문제라면 그것이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주면서 가능한 한 내게 고통과 불편을 덜 줄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다.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210쪽)

「이물」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물은 ‘나 아닌 모든 것’, 즉 정체를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화된 침입자이다. 양선은 이 침입자에게 ‘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한다. 그것은 정복적 과학기술주의의 과도한 관심과 그를 통한 자원화에 분명하게 대비되는 ‘따뜻한 무심함’이다. 양선은 이물의 기원과 본질을 캐지 않으면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는 가능한 한 서로 핼박하지 않고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소설에서 ‘이물’은 타자를 은유로 시각화한다. 환상 장치를 사용한 이런 시각화 기술은 타자와 무고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양선의 따뜻한 무심함은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만하다.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교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년자원기자단 U는 “어떤 선명한 연민이나 의기 때문이 아니라 단

---

27)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정연희의 앞의 글 참조.

지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인면수(‘똥굴손’)에게 손을 들어 올린다. 이 대목이 각별한 것은 어떤 타산 없이 ‘무심결’에 일어나는 도덕 행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인면수/똥굴손의 ‘절규’가 “실상은 자신의 피부를 타고 몸속까지 전해져 뼈를 울리는 진동과 뒤섞인 마음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아는 교감의 순간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따져보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영적 교감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물」이나 「똥굴손증후군의 내력」의 ‘교감’은 그것이 동물성 이물이든 식물성 이물이든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 교감은 친밀한 것을 넘어서 불가해한 대상으로 확장되어 있다. 타자화가 경계를 만들고 경계로 존재하며 경계를 강화한다면, 영적 교감은 차이를 믿고 받아들이며 경계를 넘어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차이는 위계화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체니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모든 지인의 차이에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모든 지인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세계 관찰자로서 자신의 사례에서 세계를 이론화할 수 있다는 오만한 견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인이 다르다는 가정은 타인의 존재와 경험이 현실과 현실에 함축된 가치를 구성하는 데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sup>28)</sup> 영적 교감은 차이를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대화의 감수성이라고 할 만하다.

## 5. 공포 발견의 서사와 윤리적 계기

전통적인 서구 윤리철학이 보편주의의 질서 속에서 객관적인 관점을 지향한다면, 서사윤리학은 서구의 근대 보편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

28) Jim Cheney, Ibid., pp.168-169.

되었다. 보편주의의 도덕적 원칙 추구는 동일성의 가정 아래 객관성과 보편성에 준거를 두고 있다.<sup>29)</sup> 어떤 판단이라도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 졌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측면이 있다. 에코페미니스트는 추상적이고 보편적 준거 속에 존재하는 행위를 인정하되 행위자의 개인성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자 한다. 에코페미니스트는 보편적인 도덕 철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도덕적 고려에 들지 않으므로 예외자를 산출하는 배타성이다.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지배적 확신이 자연과 여성을 동일한 예외의 영역 속에 자리매김하고 인간타자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에코페미니스트 서사 윤리학은 전통 윤리철학이 놓치는 다양한 타자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도덕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예외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도덕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인간 타자와 비인간 타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물음의 답은 능동적인 주체로 해석될 것을 요청하는 구병모 소설의 환상적 은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을 실체화하여 행동하게 하고 절규하게 하는 구병모 소설의 환상적 은유(「조장기」, 「명굴손증후군의 내력」, 「파르마코스」 등)는 자연과 쌍둥이 예외자로서 인간 타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타자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재난의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대화를 청하는 새로운 존재로 재인식되는 것이다. 이른바 구병모의 공포 발견의 서사는 ‘타자 다시 쓰기’의 윤리로 간주할 만하다.

구병모 소설의 영성(「곤충도감」, 「이물」, 「명굴손증후군의 내력」)은 대화의 가능성을 지구의 다른 존재에 확장한다. 특히 「곤충도감」의 기묘한 영성은 성스러움과 불순함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명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윤리적 계기를 마련한다. 주인공의 평온한 태도에 깃든 생명의 확신은, 여성의 신체가 생산의 자원으로 환원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를 산출하는 장소로 재

29) 이해정, 「내러티브 윤리학과 여성주의 주체」, 『철학연구』155, 2020, 130쪽.

탄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여성과 자연의 연결을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기 바라는 영성은, 방법론적으로 에코페미니스트 이론 안에서 비주류의 위치에 자리한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교육을 받아오고 그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영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영성은 더욱 각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외부가 에코페미니즘 내부의 경험과 지식이 놓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중요한 맥락을 더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그러하다.

또 다른 서사 윤리의 차원에서 공포 발견의 서사가 지니는 윤리적 계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것이 전체론을 경계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써 가능한 것이라면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서사 윤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이 기본적으로 개인경험과 감정생활을 다루는 장르라는 서사의 정체성을 감안한다면, 내러티브가 지니고 있는 맥락과 소통의 요소는 에코페미니스트 윤리가 지향하는 것과<sup>30)</sup>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구병모의 공포 발견의 서사가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폭력을 구체적으로 맥락화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독자의 시선이 소설 세계에 감정이입하고 교감함으로써 소설의 상황을 재맥락화하는 것이다. 생태비평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비인간 세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고도로 맥락 짓는 시도(a highly contextual attempt)”<sup>31)</sup>에 해당한다.

공포 발견의 서사가 생태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공포의 발견인가’의 물음을 포함하는 데 있다. 요나스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포의

---

30) Karen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p.102-5. 그는 특히 일인칭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1) Jim Cheney, “Eco-Feminism and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9, no.2 (Summer 1987), p.143.

발견은 최선의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며 마지막 수단도 아니지만, 선을 탐구하는 데 상당히 유익한 방법임에<sup>32)</sup> 틀림이 없다. 배제주의와 차별주의의 일상적 폭력과 그로 인한 공포의 발견은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윤리의 목적 자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물의 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구병모 소설은 이를 환상적인 공포서사로 시각화하고 각인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

32) 한스 요나스,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66-67쪽.

## 〈인용문헌〉

### - 기본자료

구병모, 『고의는 아니지만』, 민음사, 2011(개정판, 2021).  
\_\_\_\_\_,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문학과지성사, 2015.

### - 참고자료

고영진,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 『한국문학이론과비평』75, 2017.  
신두호, 「'코요테 담론'-생태여성주의 문학의 자연/여성 주체화하기」, 『현대영어영문학』, 53권 3호, 2009.  
안아름, 「현대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 연구」, 『문학과환경』16/4, 2017.  
이혜정, 「내러티브 윤리학과 여성주의 주체」, 『철학연구』155, 2020.  
정연희, 「구병모 소설에 나타나는 생태윤리학적 디스토피아와 돌봄의 윤리」, 『돈암어문학』40, 2021.  
황광수, 「일상적 무감각과 치사량의 독성」, 『고의는 아니지만』 해설, 민음사, 2011(개정판, 2021).  
Agamben, Giorgio,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Cheney, Jim, "Nature/Theory/Difference", Ed. Karen Warren,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Clément, Catherine·Kristeva, Julia, 임미경 역,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Culler, Jonathan, 조규형 역, 『문학이론』, 교유서가, 2016.  
Girard, René, 김진식 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Glotfelty, Cheryll, "Introduction:Literary Studies in an Age of environmental Crisis", Ed.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The Ecocriticism Reader*,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Gretchen, Legler, 「에코페미니스트 문학비평」, 이소영 외 편역, 『자연, 여성, 환경』, 한신문화사, 2000.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Jakobson, Roman, 신문수 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2.  
Warren, Karen and Cheney, Jim, "Ecological Feminism and Ecosystem Ecology", *Hypatia* vol.6, no.1, 1991.

## 〈국문초록〉

### 구병모 소설의 재난 의식과 에코페미니즘의 상상력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2011)과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2015)을 대상으로

정연희

구병모 소설의 재난 형상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검토하였다. 소설에 구현되는 재난이 특별한 것은 인간 재난과 자연 재난이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에 그치고 그것이 자연 타자와 인간 타자의 신체교환으로 재현되는 환상적인 공포서사라는 점에 그치다. 구병모 소설은 인간이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을 타자들의 절규어린 대화의 요청으로 맥락지어 놓는다. 구병모 소설의 환상적 은유(「조장기」, 「똥굴손증후군의 내력」, 「파르마코스」 등)는 타자를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재난의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대화를 청하는 새로운 존재로 재인식하게 해준다. 구병모의 공포 발견의 서사는 ‘타자 다시 쓰기’의 서사윤리로 간주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구병모 소설의 영성(「곤충도감」, 「이물」, 「똥굴손증후군의 내력」)은 배려와 대화의 가능성을 지구의 다른 존재에까지 확장한다. 「곤충도감」의 기묘한 영성은 성스러움과 불순함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명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윤리적 계기를 마련한다. 주인공의 평온한 태도에 깃든 생명의 확신은, 여성의 신체가 생산의 자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를 산출하는 장소로 재탄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여성과 자연의 연결을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영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 체계가 놓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중요한 맥락을 더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에코페미니스트의 각별한 방법이 된다.

구병모의 공포 발견 서사가 지니는 윤리적 계기는 강조될 만하다. 서사라는 장르의 정체성이 전체론을 경계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써 가능한 것이라면, 공포발견의 서사는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폭력을 구체적으로 맥락 짓는다. 그 다음 차례는 감정이입하고 교감하는 독자가 소설 상황을 다시 맥락 짓는 것이다. 생태비평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비인간 세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고도로 맥락 짓는 시도”에

해당한다.

**주제어:** 구병모, 재난의식, 인간과 자연의 신체교환, 자연의 실체화, 생명의 의미, 영성, 공포발견의 서사, 타자 다시 쓰기, 서사윤리

〈Abstract〉

## The Disaster Consciousness and Imagination of Ecofeminism in Gu Byeong-mo's Novels,

*It's Not Intentional*(2011) and *I Hope It's Not Just Me*(2015)

Jeong, Yeon-Hee

(Daejin University)

The shape of the disaster in Gu Byeong-mo's novel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feminism. Disaster embodied in the novel is speci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human and natural disasters, and it is a fantastic horror narrative that is reproduced through body exchange between natural and human others. Gu Byeong-mo's novel puts what humans perceive as a disaster into the context of others' request for a screaming conversation. The fantastical metaphors of Gu Byeong-mo's novels make us recognize the other as a new being who reveals himself in the form of a disaster and asks for dialogue, not a transparent being. Gu Byeong-mo's narrative of discovery of fear can be regarded as the narrative ethics of 'rewriting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spirituality of Gu Byeong-mo's novels extends the possibility of consideration and dialogue to other beings on earth. The bizarre spirituality of 『Insect Encyclopedia』 provides an ethical opportunity by asking meaningful questions about life in the precarious boundary between sacredness and impurity. The certainty of life in the main character's calm attitude is to inform that the female body is being reborn as a place that produces the meaning of life, rather than being reduced to a resource for production. Spirituality, an immediate and sensuous experie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women and nature, is a particular ecofeminist method in that it can more fully reveal an important context that rational and rational value systems are

supposed to be missing.

It is worth emphasizing the ethical momentum of Gu Byeong-mo's narrative of discovery of fear. If the narrative genre itself is to confirm differences while being wary of holism, and that is possible with concrete and vivid language, the narrative of discovery of fear concretely contextualizes anti-ecological and anti-life violence. The next step is to recontextualize the novel situation by having the reader empathize with and sympathize with the world of the novel. In terms of ecocriticism, it offers "a highly contextual attempt to see clearly what a human being and what the non-human world might be, morally speaking, for human beings."

**Keywords:** Gu Byeong-mo, disaster consciousness, physical exchange between human and nature, materialization of nature, meaning of life, spirituality, narrative of discovering fear, rewriting others, narrative ethics

투 고 일	2022년 12월 04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2월 21일